
비계(飛階)

이 윤 정

“오늘 학교에서 형제자매 있는 사람은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쌍둥이냐고 물어보셔서 아니라고 했더니 동갑인데 쌍둥이가 아니냐고 당황하시더라.” 설거지를 하는데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뭐라 했는데?” 아들목소리다. “우리가족은 재혼가족이라고 말했지. 나랑 새 아빠의 아들이랑 동갑이라고.” “우리 반 선생님도 쌍둥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난 그렇다고 했는데...” “야, 그냥 재혼가족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넌 창피하냐?” 딸아이가 핀잔을 준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흘깃 아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늘진 아들의 표정에서 재혼은 들키고 싶지 않은 ‘가족의 비밀’ 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재혼가정이다. 남편의 아들과 내 딸은 동갑이다.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들에게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왔다. 반에서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엄마가 한부모 가정 애들이랑은 같이 놀지 말랬어.” 그 후로 남편은 세상이 아이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이혼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마음은 아이에게도 오롯이 전이가 되었을 것이다. 아이는 어디서든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 친구한테도 엄마랑 같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다.

“저는 아빠랑 같이 안 살아요.” 오래 전 아빠의 부재를 신경 쓰던 누군가의 궁금증으로 인해 딸아이는 유치원 재롱잔치 날 불편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았어야 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덕분에 이혼, 재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의 집합체인 사회에서 혈관을 따라 몸속을 누비고 다니는 암세포처럼 편견과 차별은 우리 삶 곳곳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똑같은 문제행동에 다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부모가 이혼했으니 아이가 그 모양이지.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해.” “어린 자식을 두고 이혼이라니! 이기적인 부모 만나서 애들만 불쌍해.” “새엄마라며? 눈칫밥 먹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일까.” 사

람들은 낯선 충고 또는 친절을 가장한 동정을 호의라며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다.

어쩌면 가족형태를 구분 짓는 사회 시스템이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혼가정은 불안, 위축, 결손, 방황 등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고, 재혼가정은 불화, 차별, 방임, 학대와 같은 의심어린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한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안쓰러운 존재인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인자 또한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 낙인찍힌 셈이다.

딸아이한테 나는 이야기한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똑같은 형태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다양한 형식 중 한 가지 형식으로 살게 된 것뿐이라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넌 엄마 아빠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야.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야 너를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단다. 그래서 따로 살기로 결정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커가면서 이해했다.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아이는 안다. 행복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는 것도 말이다. 아빠가 없다고 친구가 놀리면 이렇게 말했다. “나 아빠 있거든. 매일 못 볼 뿐이지. 그래서 더 소중해. 만날 때마다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면 너희들도 부러울 걸.” 재혼에 있어서도 아이와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몇 년 동안 준비했고 딸아이는 지금의 남편을 무척 따른다. 아이는 아빠가 두 명인 사실을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사 오기 전, 아이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 솔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시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해서 학원 못 다니게 됐다고요. 새로운 환경이 조금 걱정도 되지만 무척 기대된다고 하네요. 호호호~ 축하드려요.” 딸아이는 부모의 이혼도, 엄마의 재혼도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만큼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은 잡초의 뿌리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한다. 뽑아도 자꾸 살아나는 잡초 뿌리에만 집중한다면 머지않아 짜증이 나고 지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당 전체를 조망한다면 노력을 들인 만큼 잡초는 줄어들 것이고 점차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갈 것이다. 멋진 마당 전체를 보려 하지 않고 잡초가 안 없어진다고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얼마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인가. 편견과 차별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나는 아이에게 가르친다. “세상은 넓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단다. 그 많은 사람들 생각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

지. 우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 대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건 그보다는 쉽잖아. 그런 시선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내가 당당하면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 인간의 가치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스로 약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어떤 가족형태든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듯 아이들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도와주는 일이 단지 부모만의 역할은 아니다. 사회시스템 전체가 비계(飛階)가 돼주어야 한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잘못이 아닌 일에는 늘 당당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살아가면서 부여받게 될 다양한 사회적 타이틀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빛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위축되지 않고 세상과 소신껏 소통하면서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인 <마음의 힘 키우기>를 실천 중이다. 이 아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도 점점 더 따뜻해질 거라 믿으면서 말이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도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세상을 향해 힘차게 한걸음씩 내딛게 될 것이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언젠가 마음이 단단해진 어느 날, 세상이 씩은 편견과 차별이라는 무거운 울가미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날개를 펼쳐 훨훨 날아오르는 그날이 올 것이라 나는 믿는다.